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진리 제목 : 진리를 향한 열정 성경:갈라디아서 5장 1절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5:1)

이승만대통령의 유언과도 같은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자유도 주셨다. 그러나 이 자유도 스스로 종 되려고 하는 자에게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약속했지만,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다. 다른 무엇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며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정의의 영이시고, 지혜와 모략의 영이시다.

예수님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14:26)

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15:26)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16:13)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들이다.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다. 이 말씀들을 믿는 우리는 가장 든든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믿음으로 리액션해야 한다. 사랑은 리액션이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최악이고, 그것은 무례함이고, 그것은 죽음이다. 살아있는 선한 사람은 반응한다.

그러나 가장 건강한 반응은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것이다. 성령은 진리로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진리를 향한 열정이 없다면 핵심을 놓치는 격이다. 거짓으로 충만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할수만 있으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끝어다가 마귀의 자녀를 삼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직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야 한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8:32)

그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 아멘.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참 자유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진실로 겸손해야 한다. 세상에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도 많고, 반대로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들은 더 많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자신감이 많은 적든 상관없이 겸손한 사람이다. 왜냐면 사람의 진면목을 바라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충분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겸손해야 할 존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자신감을 넘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된다면 궤도를 벗어난 행성과 다를 바 무엇일까. 예수님도 그토록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옛 죄인처럼 기고만장 하리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 또한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였었다. 성령으로 충만한 나머지 자신이 아직 연약한 영혼인 것을 망각한다. 여전히 죄인의 신분임을 잊어버린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며, 작은 욕심에도 미혹될 수 있는 존재임을 상기하자.

사람은 나약한 존재이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인간들은 한마디 말에 절망하고, 한가지 오해로 인해서 과멸을 자청하고, 한가지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평생을 미워하기로 작정하는 존재들이다! 그런 모습이 모든 인생의 현주소이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예들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도 예전에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하리라.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변한다.

오늘은 유익한 지식이 내일이면 쓸모없는 지식이 되어 버린다.

인생 또한 너무 짧아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지 못한 채 힘이 빠져 버린다.

유일한 대안은?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해야 한다.

진리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무언가는 희생해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인내하며 인고의 계절을 지내야 한다. 그리고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된다. 아멘.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율법주의의 덫

에 걸리게 되고, 죄악에 굴복하게 되고, 세속에 물들게 되며, 절망하게 되며, 오해하게 되며, 미워하게 되며, 원수 맺는 것을 풀지 않게 된다.

우리의 실패는 사업의 실패가 아니다. 영성의 실패가 진짜 실패이며 더 비참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리의 성령을 간구하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며 탐구해야 한다. 아멘.

예화; 기적의 사과

.썩지 않는 사과를 키우는 농가.

.사과나무에게 말을 건네다.

.내 눈과 손이 곧 농약이고 비료다.

‘이시카와 다쿠지’ 저 , 김영사 출판의 ‘기적의 사과’

썩지 않는 기묘한 사과, 기적의 사과를 만들어낸 농부할아버지의 이야기.

본인의 노력과 정성으로 탄생한 무농약 사과의 결실을 사과나무가 만들어낸거라 말하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한일은 고작 사과나무를 돕는 정도만 했다는 이분의 감동 스토리.

산에 있는 나무가 비료도 농약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여 산을 그대로 재현한 이분은 10년간 실패끝에 사과꽃을 피우게 됩니다.

-아오모리현 이와키마치 시.

-발명에 관심이 많은 키무라 (아내 미에코)

-아내가 농약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연구시작

-6만평의 사과밭을 자연농법으로 재배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지은 ‘자연농법’에서 영감을 얻음 -자연은 완결된 시스템이다.

-1978년부터 무농약재배 시작

- 벌레 때문에 나무가 죽어감. 손으로 직접 벌레를 잡아줌.
- 식용유를 껍질에 발라 말라죽지 않게하고, 식초를 뿌려줌.
- 나무에게 웃어주며 말을 걸어줌. 제발 죽지만 말아달라고 함.
- 산 속에 있는 사과나무는 잡초 속에서 잘 자라는 것을 보고
- 흙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잡초를 키우고, 콩을 키우고, 오리를 키우고 새가 날아와 벌레를 잡아먹게 됨.

<찬양예배>

주제: 율법과 복음 제목: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26절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 5:13-26)

율법과 복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율법주의와 성령충만은 반대개념이다.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자유는 핵심 주제. 특히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전문주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에 대한 사명감이 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의 오용. 죄사함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됨. 실제로 방종은 풀려진 모든 인류의 자연스러운 현상.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기생, 광대, 하인, 노예, 무당, 걸인, 백정 등 하층민들의 개인적인 삶은 개같은 삶으로 방치함. (오직 사대부의 자녀들, 특히 아녀자들만 혹독한 도덕적 삶을 강요함.)

-자유는 죄를 맘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님. 방종임.

-자유는 마귀의 철장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함.

-죄는 악한 것, 무의미한 것, 무익한 것, 저주, 멸망, 파멸, 그 마지막은 심판과 죽음이다.

-죄는 달콤하지 않다. 죄는 쾌락이 아니다. 오히려 가짜 쾌락이요, 바닷물과 같은 것이며, 위조된 것이며, 나쁜 댓가를 치루어야 할 것들이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종 노릇이라는 자유와는 정반대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참 자유의 실체를 드러내려 함. (문학적 파라독스-역설)

-사실은 종 노릇이라도 자유로운 종 노릇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임을 나타내게 됨. 그렇다면 이렇듯 아무런 자유도 가지지 않고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자유이다.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

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한 욕심이 죽었다. 죄를 향한 갈망이 죽었다. 죄를 위한 헌신이 죽었다.

-간혹 속을수는 있을지 모르나 죄를 위해 살거나 그것을 그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손과 발을 씻는다.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성령충만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자.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내가 천사처럼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다. 내가 혹 속아서 넘어질 수는 있어도 내가 몰래 그 죄를 탐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다. 혹 속아서 넘어질 경우 우리는 바로 회심하고 용서를 빌고 댓가를 지불함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가 죄를 가지고 나를 옹아매지 않도록 하라.